



금관리보건진료소장

정하복

“金冠理 마을

- 평범하게

“어릴때부터 백의천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난의 길인 백의 천사가 좋아요.

『저는 하얀까운을 입고 병상의 아픈환자를 돌보고 있는 백의천사들을 보면서 저도 이다음에 어른이되면 백의천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순수하면서, 깨끗한 이미지를 풍기는 정하복보건진료소장(39세 충북 청원군 이원면 금관리 일구)은 어릴때부터 백의천사가 되고자 했던점을 강조 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고난의 길인 백의천사로서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1년 9월부터 보건진료소에서일을 해온 정하복소장은 이곳 금관리보건진료소에 84년 부임되어 향시 마을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늘 신경을 썼다.

『처음에는 마을사람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해 교육을 실시 했죠, 성인병과 기생충에 대하여 각종 슬라이드 영화상영, 유인물배포, 강연등 반복적인 계몽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했습니다.』84년 처음이 곳에서 자신이 한 일들을 설명하는 정하복소장. 자그마한 보건진료소 벽에 가득찬 교육일정표와 교육계획표를 기자는 볼수가 있었다.

치료와 예방을 동시에 실시 합니다.

『저희 금관리 보건진료소는 주민이 적고, 지리적으로 오지에 있는 관계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대한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여 실시 합니다.』

『병이 심한 상태가 되면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단한 질병에 대하여 치료하고, 차후에 대비하여 예방법을 자세히 교육 시킵니다.』 정소장은 감기같은 간단한 질병에 대해서는 약을 복용치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규칙생활로 유도하여 지나친 약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게 한다고 강조 한다.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늘 신경써요”

태어나 힘든 일을 하는 정하복 보건진료소장 -

기생충약 투약은 새벽 6 시에 실시해요.

『예전에 마을사람들이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생식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충북지부 건강관리협회에 교육을 의뢰하여 간디스토마에 대한 영화, 슬라이드상영및 강연회를 실시 했죠. 그리고 마을 건강원들의 도움으로 모든 마을사람들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설문편지를 돌리고, 대변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채취도 안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마

을사람들에게 세번씩이나 찾아가 설득을 했더니 그제서야 100% 번 채취가 되더군요. 충북지부 건강관리협회에 검사를 의뢰하고 투약에 대하여 교육과 약을 받고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농번기라 모든 사람들이 바빠서 새벽 6 시에 보건진료소에서 투약을 한다고 광고를 했죠. 그랬더니 전 마을사람들이 새벽 6 시에 보건진료소앞에서 대기중인것을 다음날 아침에 알았어요.』그당시의 기쁨은 너무나도 소중한 기쁨이라고 강조하는 정소장은 금관리 마을사람들의 부지런한면도 자랑한다.



순수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의 생활 철학이라고 말하는 정소장 자그마한 보건진료소의 청결함이 유난히 돋보이는 것 같았다.
(사진 작 : 강효순 마을 건강원 회장
우 : 정하복소장)